

## 네덜란드 NETHERLANDS



###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형법 개정

곽 서 회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법이 발효되었다. 2021년에 네덜란드 사법보안부(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에서 법안을 상정한 이후 논의를 거쳐 2024년 3월 네덜란드 상원(Senate)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폭행 또는 기타 유형의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는 강간이나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무력이나 협박이 가해졌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없는 경우 성범죄 증거 입수가 어렵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는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그 어떤 형태로든 합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행은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성관계는 쌍방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2년 내외로 정해져 있었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온라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방된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성추행은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성적 대화(communication)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 네덜란드 정부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면서, 직접 만나 성관계를 제안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성관계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 16세 이하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대화 행위 등을 범죄로 명시했다. 심지어 경찰은 앞으로 16세 이하 아동 또는 16-17세의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용의자로서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심문 또는 구금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경찰이 아동 성적 학대 사건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참고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2024.3.19), "Netherlands: 'Historic victory' as Dutch law adopts consent-based definition of rape",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4/03/netherlands-historic-victory-as-dutch-law-adopts-consent-based-definition-of-rape/#:~:text=Today%20the%20Senate%20voted%20to,on%20July%20the%201st%202024.> (접속일: 2024.7.22.)
-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접속일: 2024.7.22.)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4.7.22.)

셋째, 이번에 발효되는 법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행위가 추가된 것 뿐만 아니라 처벌 자체도 강화되었다. 12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최대 15년, 12-16세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최대 1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확대되었다.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는 징역 6년으로 확대되었다.

딜런 예실거즈(Dilan Yesilgöz) 사법부 장관은 개정된 법의 핵심은 성관계에 있어 쌍방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적 관계는 항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는 온라인상의 소통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체적인 관계이거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사법부는 방송,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해당 법 개정을 알리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정부는 더 효과적으로 이번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1년 반 전부터 경찰, 검찰 등 관계 당국 차원에서 점진적인 이행 절차 기반을 다져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이행 지침, 내부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 개선, 관계자 역량 개발 등은 이미 추진 중이다. 경찰에서는 약 25,000 여명이 이번 새 법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에 있어 '합의'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더라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신고한다거나, 합의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인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등 실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증명 문제는 사례마다 복잡한 맥락이 얹혀있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상의 증거,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합의라는 개념을 성범죄에 반영한 점,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아우르는 성추행 및 성범죄를 포괄한다는 점,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즉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범죄의 범위나 피해자 보호 영역을 제도적으로 확장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사법 및 수사기관 인적자원이 개정법을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증명할 의무는 없어졌더라도 증거 수집과 입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네덜란드 유관기관 및 전문 인력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Politie Academie (2024.4.11.),  
"Netherlands Police Academy is developing a teaching aid package on the new Sexual Crimes Act for tens of thousands of police colleagues",  
<https://www.politieacademie.nl/en/about-us/news/netherlands-police-academy-is-developing-a-teaching-aid-package-on-the-new-sexual-crimes-act-for-tens-of-thousands-of-police-colleagues>  
(접속일: 2024.7.22)



##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임 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4년 3월 모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3500만 파운드(한화 약 610억 원)를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금액은 주로 산과 의료인력 및 조산사를 교육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추가로, 900만 파운드(한화 약 159억 원)를 출산 과정에서의 영아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빅토리아 앳킨스(Victoria Atkins)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성건강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여성이 출산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해당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산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걸쳐 산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은 2024년 발표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2023년에 모성과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3-year delivery plan for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을 발표했다. 또한, 모성 건강 지원에 있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 건강도 포함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영국의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 추진 배경

- 2022년 빌 커크업(Bill Kirkup) 전문의가 런던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스트 켄트(East Kent) 지역의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의 의료 수준이 매우 발달하여 전반적인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예방이 가능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가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형성에 핵심적으로 주목한 사안은 보건의료 인력이 환자(산모)와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리아 콜필드(Maria Caulfield)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국립 모성 및 신생아 돌봄 감독원(Maternity and Neonatal Care National Oversight)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영국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2023년 3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산모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계획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주요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

- GOV UK (2024. 3. 10.), “£35 million investment to boost maternity safety”, <https://www.gov.uk/government/news/35-million-investment-to-boost-maternity-safety> (접속일: 2024. 7. 31.)
- House of Commons(2024.05.14.), “Quality and safety of maternity care (England)”,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815/CBP-9815.pdf> (접속일: 2024. 7. 31.)
- Bill Kirkup (2022. 10.), “Reading the signals -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 in East Kent - the report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4fb0afe90e0731ae2a147a/reading-the-signals-maternity-and-neonatal-services-in-east-kent-the-report-of-the-independent-investigation\\_web-accessibl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34fb0afe90e0731ae2a147a/reading-the-signals-maternity-and-neonatal-services-in-east-kent-the-report-of-the-independent-investigation_web-accessible.pdf) (접속일: 2024. 7. 31.)
- GOV UK(2023. 7. 31.), “Maternity and neonatal care: How are we improving services?”, <https://healthmedia.blog.gov.uk/2023/07/31/how-are-we-improving-maternity-and-neonatal-care/> (접속일: 2024. 7. 31.)

- 1) 유대감을 바탕으로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Listening to woman and families with compassion)
- 2) 서비스 인력의 확충·보존·지원(Growing, retaining and supporting our workforce)
- 3) 모두의 안전을 위한 문화 개발 및 유지(Developing and sustaining a culture of safety to benefit everyone)
- 4) 국가보건서비스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과 구조 확립(Meeting and improving standards and structures that underpin NHS national ambitions)

- 영국에서는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건 의료진이 진심으로 귀담아듣는 행위가 안전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2022년 커크업(Kirkup) 전문의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많은 사례들이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그로 인해 환자가 보건 의료진과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에 의한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청을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이유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목표 또한 경청과 정서적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산모 개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 결과적으로 안전한 출산과 출산 전·후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 앞서 언급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진과 조산사의 인력 확충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3,500만 파운드(한화 약 61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6천 명의 산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이 인력의 대부분은 영아 소생술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적절히 조치하면 예방이 가능한 신생아 뇌 손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조산사의 일자리 120곳을 확충하여 더 많은 숙련된 조산사들이 산모들의 산후 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확충된 인력과 기존 인력 모두에게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된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술적으로만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어떤 작은 상황부터 위급 상황까지 전문 인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리하면, 영국 정부는 모성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법을 신체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가 모성 건강을 산모의 출산 전부터 후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산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정신적 지원에 초점을 둔 정서적 지원이 모성과 신생아 건강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